

전남도, 2022년 관광객 6천만명 '시동'

전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관광객 60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7기 도정 5대 중점과제인 '오감민족 문화관광'을 실현하고 전남 관광객 6000만 명 유치 달성을 위해 '전남 관광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관광을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저출산 저성장시대에 직면해 있는 우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관광기반 시설 확충, ▲전략적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 ▲지역관광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4대 전략 4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7조 6732억 원을 투입한다.

차별화 된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단지 활

4대 전략 45개 중점과제 7조6천억 투입

"관광객 유치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성화, 융복합 관광산업육성 기반 구축, 섬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등 4개 핵심과제 22개 사업으로 7조 61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남해안(진남~부산간)광역관광 SOC 확충과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서남해안(영광~광안)명품 경관 관광자원화, 해양·도서지역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목포를 환황해권의 관광·휴양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양치유단지 조성하고 도서지역 관광명소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적인 홍보 및 마케팅사업에는 관광객 유구에 부응한 관광 정보 제공, 최근 여행 수요에 맞는 관광 상품 개발 운영, 국내의 마케팅 활동 강화 등 3개 핵심과제와 11개 세

부사업에 371억 원을 투자한다.

스마트 관광안내 및 해설 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내·외국인 대상 관광상품개발,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전세기 및 크루즈선 유치, 중국 및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한다.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을 위해 관광안내 및 편의시설 확충, 관광객 환대 서비스 및 안전 강화 등 2개 핵심과제와 7개 세부사업에 13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국제공항 편의시설 보강, 관광안내소 명품화 및 고도화, 무장애 열린 관광여건 조성,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강화, 관광객 안전강화, 남도패스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을 유치 할 계획이다.

지역관광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는 지역관광 컨트롤타워 구축과 청년관광 일자리 창출 등 2개 핵심과제와 5개 세부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한다.

관광상품과 콘텐츠 개발, 국내·외 통합 마케팅 운영 등 전남관광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관광 전담기구 설립과 지역의 유능한 청년 관광기획자 양성을 통한 주민 사업체 설립 운영,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지원센터 유치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인력 양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 김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이번에 수립한 '전남관광 비전과 전략'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면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로 도민과 함께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구,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광주 동구가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30일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개최했다.

동구는 이날 오후4시부터 일찍 동구청장을 비롯한 60여 공직자와 자생단체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산수시장 등 3곳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제수용품과 명절선물을 구입하고 유관기관·단체·기업체 등에 온누리상품권 구매운동 동참 및 전통시장 이용을 홍보했다.

서구 365일 민원봉사실, 설 연휴 정상 운영

설 연휴 기간에도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이 쉬지 않고 문을 연다. 광주 서구는 설 연휴 기간에도 365일 민원봉사실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서구는 2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기간 동안 급하게 증명서류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 동안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지방세증명 등이다.

다만 미 발급되는 제 증명도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350-4652)로 문의해야 한다.

남구, 진월IC 진·출입로 공사 본격화

광주 남구 진월동 및 노대동, 봉선동, 효천지구 거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공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남구는 30일 "광주에서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 공사를 위해 실시할 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올 한해 토지매입 등 손실보상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까지 손실보상을 끝낸 뒤 곧바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진월IC 진·출입로 개선 공사가 완료되면 용산IC를 지나 진월제 부근에서 상무지구와 광주공항 방면으로 향하는 진입로가 새롭게 마련된다.

북구,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조성 4억 지원

광주 북구가 주민이 참여해 스스로 마을 현안을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발굴에 나선다.

광주 북구는 "오는 3월 8일까지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2019 마을만들기 사업 통합공모'를 실시한다."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발굴하고 직접 해결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마을미래계획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회 실시 4개 분야이고 총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산구, 생활밀착형 SOC사업 62건 발굴

29일 광주 광산구가 주민이 정부 핵심과제인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구청에서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광산구 간부 공무원들은 이날 보고회에서 공직자들이 제안한 총 62건의 관련 사업을 검토했다. 나아가 실효성 있는 안을 추려 더 다듬은 뒤 정부 공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광산구는 향후 이 업무를 전담할 부서인 '생활 SOC 추진단'을 신설해 정부 공모 대응과 사업 내실화를 동시에 이뤄내기로 했다.

임형택 기자



민·관·정 85개 단체가 공동으로 꾸린 '광주 3·1혁명10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회'가 30일 오후 광주 동구 YMCA 무전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있다.

3·1운동 100주년 광주 기념행사추진위 출범

광주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날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광주 3·1혁명10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0일 오후 광주 동구 YMCA 무전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민·관·정 85개 단체가 꾸린 추진위는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서 자주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의 3·1정신을 되새기며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연다. 추진위는 3·1운동의 명칭을 3·1혁명으로 바꾸는데 주력한다.

3·1혁명은 군주제 폐지, 임시정부 수립, 신분·여성해방, 세계 반식민지 해방 투쟁에 영향을 미친 혁

명인에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이승만 등 친일파에 의해 '운동'으로 폄하했다.

추진위는 친일·나치협력자 안익태의 애국가 제창 거부 운동을 비롯, 지역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100주기를 맞는 3월1일에는 독립만세 합성을 재연하는 행사와 기념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주통일 시대를 열자는 취지를 담은 '민족자주 광주선언문'도 발표한다.

3·1운동 만세 물레길을 조성해 역사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선조들의 업적을 담은 책자 2000부를 배포한다.

민주광주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연수 근절"

"물의 빛을 시 경비 반납하고 정치적 책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30일 외유성 국외연수를 근절하고 시민사회의 감시와 평가를 받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당 지역의원들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로비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외유성 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30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연수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외연수로 물의를 빚을 경우 일체의 경비를 반납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원들은 "시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사전 사후 평가를 받겠다"고도 다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태스크포스(TF)팀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심의위원 전원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외부인으로 구성해 대상 국가와 기관, 현장을 선정한 후 합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연구·조사·학습 등 사전

공부를 통해 정책연수의 내실을 높이고 계획수립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공무원연수 전 과정에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는다.

해외연수 인원도 기존에 상인위별로 일괄 추진했던 것에서 탈피해 주제별, 제안공모 등의 방식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연수 결과는 당원과 시민에게 보고하고 연수의 성과물이 조례제정, 예산심의, 정책제안 등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개선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업진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석면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조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일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